

50회 맞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

# 가곡, 그 추억을 노래합니다

매달 둘째주 금요일 진행... 총 4000여명 참여

부르고 배우며 이웃과 함께 뜻깊은 행사까지

한편의 시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우러졌다. 가락에 몸을 맡기며 찬찬히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말의 보물 창고'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선구자', '그네', '비복', 학창시절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르던, 누구에게나 친숙한 가곡들은 마음의 청량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곡을 불러볼 기회는 거의 없다.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가요가 전부다.

지난 2008년 여름 어느날, 우리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꾸렸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 우리 가곡을 마음껏 불러보자는 취지였다. 숨겨져 있던 보석같은 곡들을 함께 배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하자는 꿈도 가졌다.

이후 매달 둘째주 금요일 오후 8시 광주 호남신학교에 자리잡은 카페 '티 브라운'에서는 은은한 차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이하 우리 가곡)가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가느다란 이슬비가 대지에 스며들듯, 한발 한발 찬찬히 걸어온 결과다. 8월 흑한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행사를 건너뛰지 않았다. 매달 60~9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다녀간 인원은 4000명

에 달한다.

50회 모임 동안 함께 부른 노래는 646곡에 이르고 '흐르는 세월 앞에서' 등 69곡의 가곡을 새롭게 배웠다. 또 아름다운 노랫말을 쓴 시인들과 작곡가들도 30여명이 다녀갔다. 50회 기념으로 지역 출신 김정수 작곡가의 작품을 조명했고, '내 맘의 갈뎀'의 이수인, '얼굴'의 신귀복, 정덕기·구희영·전준선·황덕식·김승일·국현·한만섭·김경양씨 등이 참여했다.

시는 가곡 모임에서 할 수 없는 요소. 전원범·문병란·손광은·허형만·노유섭·김지영 등 시인들이 다녀갔고, 전문가들의 시낭송 무대도 이어졌다.

시는 가곡 모임에서 할 수 없는 요소. 전원범·문병란·손광은·허형만·노유섭·김지영 등 시인들이 다녀갔고, 전문가들의 시낭송 무대도 이어졌다. 아름다운 가곡을 직접 선사해준 초청 성악가들도 장선근·박진숙·이하나·박수연·박선영·김백호·김미옥·이환희·박미애씨 등 4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아마추어 회원들의 노래 발표회는 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다. 회원 가운데는 우리가곡에 빠져 본격적인 성악공부를 하는 이들도 있고, 사회인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조선대학교병원 로비에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고, 2011년에는 결혼가정 돕기 송년음악회를 개최, 수익금 100만원을 불우이

웃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 가곡'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후원금을 내고, 매번 행사를 준비하는 11명의 운영위원들은 모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다행히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시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있어 숨통이 조금 트인 상태다.

우리 가곡의 목표는 두 가지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와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며 노래 속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좋은 가곡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옛날 가곡에는 익숙하지만 신작 가곡들은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아 숨겨진 곡들을 꾸준히 함께 배워 나갈 계획이다.

또 우리 가곡 부르기가 젊은 세대 로까지 이어지고, 학교에서도 우리 가곡이 좀 더 많이 불려지길 바란다. 방송국에서도 우리가곡을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곡 이야기'를 진행하는 황선옥 대표는 "모임을 이끌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많은 이들이 모임 때"라며 "노래를 하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비 1만원을 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2월 행사는 설날로 인해 한 주 늦춰 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cafe.daum.net/gjkr song. 문의 062-575-5999.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 모임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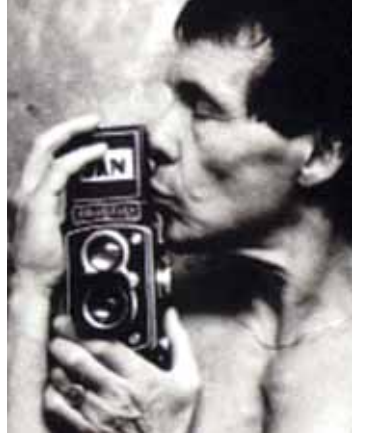
# 저장이 선보인 예술? 외설?

개막날 둘러본 체코 사진작가 안 사우텍 특별전

사진 중심은 인물... 24일까지 금호갤러리



'The Playcard Ida'



안 사우텍

'예술인가? 외설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코 사진작가 안 사우텍(Jan Saudek).

20일 오전 'World of Jan Saudek' 광주특별전(2월24일까지)이 진행중인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를 찾았다.

150여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인간가족' '기억' '금지된 과일' '인생 극장' '게임' 등 주제별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The LIFE' (1966)가 눈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첫 아이를 끌어안은 그의 손에서 작가가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다. 나중에 점령당하고 소련군에 징발된 체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비운의 젊은 시절을 보냈기에 아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담겼으리라.

사진의 중심에는 항상 인물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도 간혹 비치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배경에 불과했다. 인물들은 작가 자신부터 자

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수많은 애인이다. 그중에도 그들의 내면과 신체다.

사진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웠다. 아름다운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 흑백도 컬러도 모두 그랬다. 하지만 인물의 표정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둡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산을 이루는 파도보다 고향의 밤하늘 수많은 별보다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의 말처럼 작품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미(美)를 뽐내고 있다.

'The Haircut'(1997)은 그의 연속사진(Sequence photography)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한 여성이 샤워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과정을 9장의 스틸컷에 담았다. 내내 담담했던 여성의 표정은 마지막에 수줍음으로 가득했다. 한 여성의 고뇌와

마지막 순간의 죽음을 담은 'The Daybreak'(1979)에서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액자에 비치면서 오늘날 우리의 무거운 삶이 느껴졌다.

그의 애인을 10년간 3차례 필름에 담은 'Ten years in the life of my Veronika'(1972, 1977, 1982)도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인상적이기도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진도 있었다. 관단은 관람객의 몫이다.

하나 특이한 점은 실제 작업 연도와 함께 사진 밑에 적힌 작가의 희망 작업 시기와 그의 작품의 완성도를 표현한 다양한 색의 점들이었다.

16세 이상 관람, 1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하다. 관람료는 6000원이다. 문의 062-360-843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페스티벌 오! 광주 민간단체작품 공모

광주의 대표 공연전문 브랜드 축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가 민간 공연단체 작품을 공모한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에 연고 둔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참가 작품을 공모한다. 장르는 불문, 초연 및 신규 작품은 제외되며 심사를 거쳐 3개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공식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월 2회 공연 기준 각 15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오는 2월 13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7465. /이보람기자 boram@

## 올해의 동물 '뱀' 박물관서 만나요

23~2월27일 국립광주박물관 체험학습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계사년(癸巳年)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2013 겨울! 박물관 이야기-여섯 번째 동물, 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험교육 중심으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 '우리 문화에 나타난 뱀의 의미'와 체험 교육 '뱀 문양 한지 책갈피 만들기'(내가 만든 뱀 이미지, 한지 탈색 기법 활용, 전통 매듭 엮기 등)로 꾸며진다.

십이지신(十二支神)의 여섯 번째

동물인 뱀은 시각으로는 오전 9~11시, 방향으로는 남남동, 달로는 음력 4월에 해당한다.

대상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으로 매회 20~30가족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로 2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7068. /김경민기자 kki@



## 신자유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고선주 시인 '뱀알의 힘' 출간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계수한다. 신자유주의 열풍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심화되는 추세다. 이런 시대에 과연 시 쓰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아가 과연 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의 방식을 날카롭게 질타하는 시집이 나왔다. 광주일보 문화부 기자로 재직 중인 고선주 시인

이 최근 '뱀알의 힘'(한국문연·8000원)을 출간했다.

시인은 '광주천두물머리나루에서'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자본-국가'의 횡포로 규정할 뿐 아니라 '길'에서는 도로라는 공간을 "죽음이 삶을 부도내버린" 세상으로 상징화한다. 시인에게 세상은 엠블런스가 "중앙선을 추월해가는" 세

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학평론가 이강희씨는 "그는 인간 영혼을 질식시키는 이 삭막한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계상을 가지길 원하는 시인이라"고 평하며 "실용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시라는 일련편주를 타고 세상을 헤쳐 나가며 힘겹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한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희기자 jkspark@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b>(주)대원여행사</b>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p>	<p><b>대관령 눈꽃축제</b> <b>스페셜 올림픽 경기장</b></p> <p><b>출발일</b> 2월4일(월) 06:00경 출발(당일)</p> <p><b>여행비</b> 6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불 포함 : 식사비</p>	<p><b>정동진일출 대관령 눈꽃축제</b> <b>스페셜 올림픽 경기장</b></p> <p><b>출발일</b>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p> <p><b>여행비</b> 8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지역 도시락 불 포함 : 식사비</p>	<p><b>태백산 눈꽃축제</b> <b>석탄박물관 항지연못</b></p> <p><b>출발일</b>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p> <p><b>여행비</b> 8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조식 1회 불 포함 : 식사비</p>
---	---	---	--

**소파 식탁 거실장 기획전 각 50조 한정!**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다음달 30일까지

<p>06대리석 4인식탁 세트 190 → <b>95만원</b></p>	<p>월넛 안전유리 4인식탁 세트 190 → <b>95만원</b></p>	<p>4인 가능소파 방석 4개 니움 290 → <b>195만원</b></p>	<p>라운드 4인소파 290 → <b>195만원</b></p>
--	--	--	------------------------------------

**홍스페이스** 이태리&모던가구 직수입 도소매 ☎ **1899-0240** 동구청역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